

◎ 사순 제 1주일강론

떠나라는 소명(召命)에 응답함으로써,
주님의 영광스러운 구원에 동참합니다.

오늘 복음에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떠남과 축복’에 대하여 말씀해주십니다. 하느님께서서는 우리가 짐착하는 어떤 것(재물, 직위, 사람, 가족 등)에서 떠남으로써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도록 이끌어주십니다.

아브람함의 예가 그러하고, 구약의 야곱과 팔려갔던 요셉의 예가 그러하며, 오늘 예수님의 변모하는 모습 좌우에 나타났던 모세와 엘리야의 삶 또한 그러하였음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도 결정적인 순간에 집을 떠나 광야로 나가셨고, 우리나라의 첫 사제들인 김대건과 최양업도 조국의 구원사업을 위해 이역만리 타국으로 유학을 떠났습니다.

오늘 복음은 우리에게 구원을 위해, 그리고 참다운 영광을 위해 떠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거룩한 변모의 주인공들, 예수님, 모세, 엘리야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은 진정한 구원과 영광은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는 길로 나아가는 고통과 수난을 통하여 이루어진다는‘십자가의 신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디를 향하여 무엇을 목표로 하여 떠나야 합니까? 무작정 길을 나섰다가는 방향도 못 찾고 헤매는 우스운 일을 겪게 될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위에서 예를 들은 모든 성인들이 길을 떠날 때는 반드시 목표가 있었고, 그 구체적인 목표를 분명하게는 잘 몰랐다 하더라도 하느님의 이끄심에 대하여 확신을 갖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갈 수 있었다는 데 공통점이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주님께서 손수 이끌어주심을 확신할 수 있고, 우리는 그 주님의 이끄심을 성서묵상과 영

적상담, 그리고 공동체 활동을 통하여 알아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 주님께서 우리를 이끄신다는 것을 총체적으로 알려주는 단어가‘소명(召命)’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주님으로부터 소명을 받는 자, 소명을 깨닫는 자는 평생을 흔들리지 않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어려움과 시련도 주님께서 함께 계심을 믿기에 잘 극복해나갈 수 있습니다.

저는 대학생살의 여러 혼란을 체험함으로써 진정으로 인간을 구원하시는 분은 하느님이시고 그 방법은 하느님의 말씀(성경과 성령)임을 체험하였습니다.

그리고 청년들의 방향을 완전히 끝내게 해주시는 분도 하느님을 체험할 수 있었고, 이 구원의 체험을 전하고자 부르심에 응답하는 삶을 살고자했고, 마침내 다니던 대학교에서 진로를 바꾸어 신학교에 입학하여 사제의 길을 가기로 하였습니다.

어쩌면 아브라함과도 같은 응답으로 전혀 새로운 인생길을 걸어간 것이고, 이에 응답하여 길을 걸은 지 어언 25년의 세월이 지났습니다(1982년 1월 대학생활 회심 후).

저는 이 기간을 돌아보며 모든 발자국에 주님의 은총과 섭리를 체험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저처럼 방황하는 청년들에게 하느님의 구원을 전달하라는 그분의 소명을 깊이 깨닫게 되고, 바로 그것이 저의 사명이며 소명임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하느님으로부터 어떤 부르심과 어떤 소명(召命)을 받았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수원교구 나눔의 소 공동체 모임지

사람의 인연이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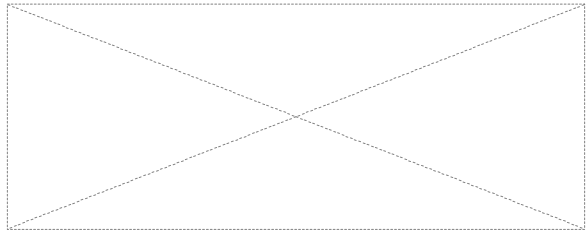
언젠가 다시 만날 사람도 있겠지만
다시는 만나지 못할 사람도 있을 겁니다.
한치 앞도 알 수 없는 게
우리네 인생이라서
다시 만날 보장이란 없는 것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린 너무 경솔하게 사람들을 대하는 건 아닌지요?
옷깃이라도 스치고 눈이라도 마주치며
지나는 사람들에게 좀더 좋은 인상을 주면서
좀더 깊은 애정을 느끼며 살아가야 함에도
우린 대부분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내가 어떤 사람과 만난다는 것은
거의 기적에 가까운 일입니다.
이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어떻게 유독 그 사람과 마주치게 된단 말입니까.

그 술한 사람들과
그 술한 세월 속에서 나와 만났다는 것은
설사 그것이 아무리 짧은 만남이었다 치더라도
참으로 그것은
우리에게 대단한 인연이 아닐 수 없습니다.

따라서 우린 어느 만남이라고
소홀히 할 수는 없는 일입니다.
아름다운 기억으로써
꼭 다시 만나고 싶은 '잊을 수 없는 사람'으로서
남의 가슴에 꼭꼭 간직되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
우린 모두 아낌없는 노력을 해야 될 겁니다.



사 순 기 도

사랑의 창조주여 들어주소서
사순절 재의시기 돌아왔기에
우리맘 눈물흘려 기도하오니
애절한 우리기도 들어주소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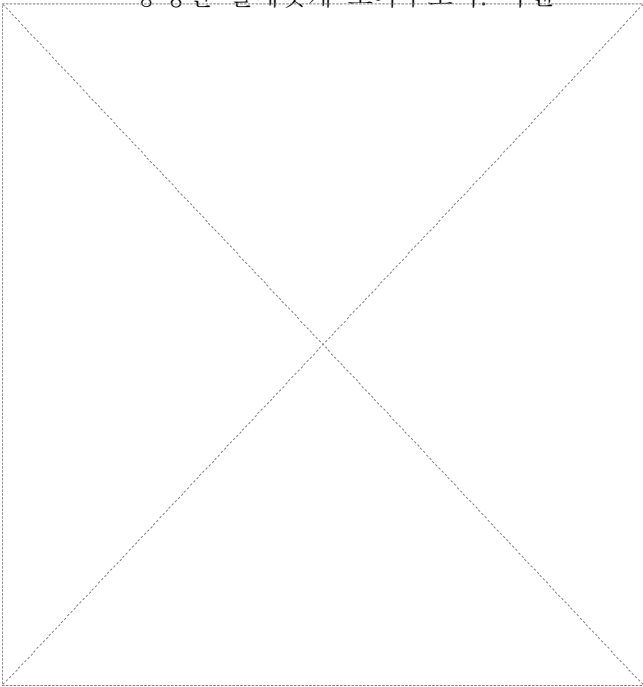
살살이 우리마음 살피시는주
마음의 나약함을 의히하시니
주님께 돌아서는중 우리들에게서
사죄함 크신은총 내려주소서

저지른 죄악들이 많고크오나
신뢰로 비옵나니 용서하소서
영원히 주님이름 찬미하리니
나약한 우리마음 고쳐주소서

제계를 충실하게 지킴으로써
우리의 육신욕망 높리이기고
죄악에 빠지는일 아예없도록
마음도 절제토록 도와주소서

해마다 찾아오는 사순시기에
통회의 행위로써 속죄를하고
부활을 갈망하며 준비한후에
마땅한 큰기쁨을 얻게하소서

복되고 복되옵신 삼위일체여
유일한 주님이여 굽어보시어
정성껏 바치옵는 우리재계가
풍성한 열매맺게 도와주소서. 아멘



서부공소 및 본당 소식

◎ 견진성사 신청

3월 9일 본당 견진성사가 있습니다. 아직 견진을 받지 않으신 분들은 신청하여 주십시오.
신청 : 박 재영 선교부장 (B)519-578-8690

◎ 2월 구역모임 안내

- ▶1구역: 23일(토) 6pm 소피아 자매집
- ▶3구역: 23일(토) 5pm 박용대 형제집
- ▶4구역: 22일(금) 6pm 이상재 형제집
- ▶5구역: 23일(토) 6pm 김현태 형제집
- ▶6구역: 23일(토) 7pm 박영진 형제집

◎ 사순 시기 동안 매주일 4시에 십자가의 길이 각 구역별로 한번 씩 돌아가며 진행될 예정이오니 많은 참석을 바랍니다. 다음 주는 3구역입니다.

◎ 바뇌기도회 모임

- ▶일시: 2월 20(수) 오후 7시 30분
- ▶장소: 김근효(가롤로) 형제집

◎ 매일 미사책 추가 접수

- ▶신청 ; 박 재영 선교부장 (B)519-578-8690

◎ '본당으로 가는 길' 기도

저희 서부공소가 창립된지 12주년이 되었습니다.. 공소가 본당이 되는 것은 어차피 우리가 가야 할 길입니다. 저희가 가고자 하는 그 길에 늘 주님이 함께 하시며 지켜보실 것입니다. 모름지기 저희의 정성된 기도와 이루고자하는 마음가짐이 보다 중요한 때 입니다. 오늘 그 마음을 온전히 모아 마침기도로 '본당으로 가는 길'을 바치겠습니다.

◎ 친선볼링클럽 안내

- ▶기간: 12월 3일~2008년 3월말 까지
- ▶시간: 매주 월요일 오후 6시 30분
- ▶장소: Brunswick Bowling Centre (전년과 동일)
- ▶문의: 윤명원 행사부장

◎ 주간 전례

- ▶2 월 19일(화) 저녁 8시, 사순 제 2주간 화요일
- ▶2 월 21일(목) 낮 12시, 사순 제 2주간 목요일
- ▶2 월 21일(목) 저녁 8시, 사순 제 2주간 목요일
- ▶2 월 22일(금) 저녁 8시, 성베드로사도좌축일

◎견진교리 및 신자 재교육

3월6일(목) 저녁 8시 이금재 신부님(성령)
3월7일(금) 저녁 8시 전 레오나르도 수녀님
(그리스도인의 성장과 변화)

◎터키-그리스 성지순례

기간 : 2008년 5월 22(목)-6월 5일(목)
순례비용 : \$3,600(추가경비없음)
신청마감 : 2008년 2월 24일
신청 : 총무부장(선착순 20명)

사람이 그리워지는 아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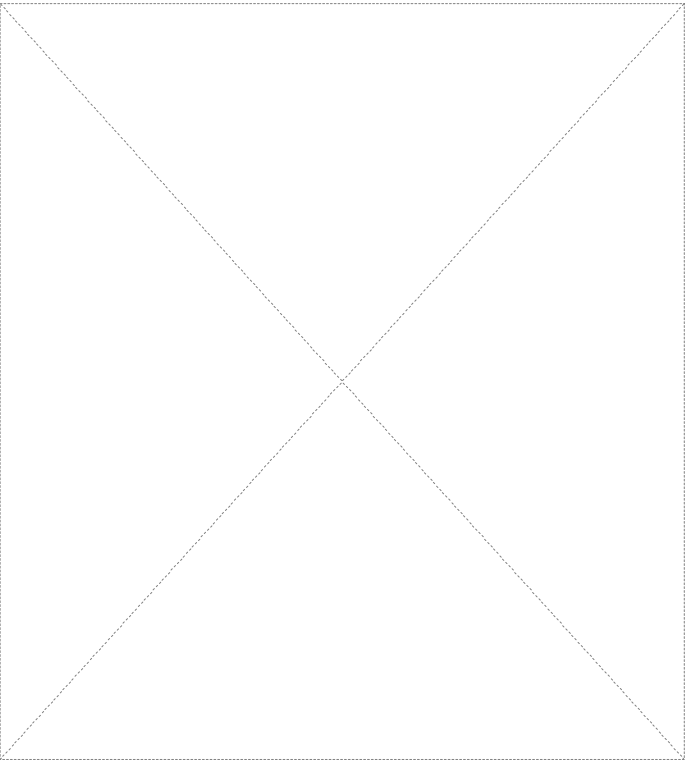
그리운 이들이 더욱 보고 싶어
저 바람처럼 떠나고 싶어지는 아침입니다
늘 흔들리며 견디는 세상살이가 힘들다는
것은 아직도 내게 사람에 대한 그리움이
살아 있음일까요

어디서부터 오는지는 모르지만 그리움이
밀려오는 아침이면 자꾸만 등뒤를 돌아보게 됩니다.

정의를 위해 고민해본 지 오래입니다
사랑을 나눠본 지는 더욱 오래입니다
친구를 만나 그리움을 덜어본 지도
언제인지 기억나지 않습니다.

그리운 이들은 여행을 떠났습니다.
언제 돌아온다는 기약도 없습니다.
이제 주소도 전화번호도 오래된
주소록에서 지워지고 있습니다.

사람이 그리워지는 아침마다 다시 만나고 싶은
가슴이 살아갈수록 자꾸만 깊어지기만 합니다.



미사전례

해설 | 박명옥 차주해설 이정숙

화답송 | 주님, 저희가 주님께 바라는 그대로,
저희 위에 주님의 자애를 베푸소서

복음환호송 ◎알렐루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 말을 들어라. 너희는 그 말을 들어라.
◎알렐루야

성가

입당 (117) 지극한 근심에
봉헌 (212) 너그러이 받으소서
성체 (163) 생명의 성체여
퇴장 (119)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

독서
2월 17일 김호철 김창숙
2월 24일 신상우 신계연
3월 2일 오세종 오미영

봉헌
2월 17일 장명길 장용경
2월 24일 김호철 김창숙
3월 2일 신상우 신계연

복사
2월 17일 경은 지현
2월 24일 하림 현재
3월 2일 지홍 규환

